

[보도자료] 쿠팡, 글로벌 가전 브랜드 TCL 대용량 냉장고 국내 첫 론칭

2026. 4. 10.



- 814L 4도어 대용량 모델 선봬 메탈 쿨링·3D 공기순환 시스템 탑재
- 삼성·LG 이어 TCL 라인업 추가 고객 선택폭 확대 및 카테고리 강화

2026. 04. 10. 서울 - 쿠팡이 글로벌 종합 가전 브랜드 TCL의 대용량 냉장고를 국내 최초로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쿠팡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냉장고를 중심으로 대형 가전 카테고리를 운영해 왔다. 쿠팡은 이번 TCL 냉장고 론칭을 통해 상품 라인업을 새롭게 추가하여,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TCL은 TV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글로벌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가전 브랜드다.

이번에 쿠팡을 통해 국내 최초로 론칭하는 제품은 814L 대용량의 4도어 냉장고다. 넉넉한 수납공간과 4도어 설계를 통해 대량의 식재료를 용도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품 색상은 화이트와 그레이 두 가지로 출시된다. 론칭을 기념해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며, 화이트와 그레이 색상 모두 할인가인 100만 원대 초반에 판매한다.

해당 모델은 제품 내부에 냉기 손실을 줄이는 'TCL 메탈 쿨링' 기술을 적용해 냉장 효율과 위생을 유지한다. 또한 '퓨어 에어(Pure air) 및 3D 공기순환' 시스템을 탑재해 냉장고 내부 공기를 균일하게 순환시키고 탈취 케어 기능을 제공한다. 조작부에는 스마트 디지털 패널을 적용하여 원터치로 간편한 설정이 가능하다. 4도어 구조 약 814L 대용량 내부 공간에 와이드 선반과 서랍을 배치해 수납 편의성을 높였다. 냉장실은 보틀 선반과 높이 조절 선반, 풀와이드, 채소 전용 2단 서랍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반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하고 재배치할 수 있다.

정기동 쿠팡 가전디지털 본부장은 “기존 대형 가전 판매를 통해 축적한 유통망을 바탕으로 TCL 냉장고를 국내 고객들에게 처음 선보이게 됐다”며 “이번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가전 라인업을 지속 확대해 고객 선택지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